



조선

특간호
2025

(834)



1956년 4월
화보 《조선》 창간

차 례
특 간 호

- 2 Ⅱ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80돐 경축대회 성대히 진행
- 10 Ⅱ 조선로동당창건 80돐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조선로동당 만세》 성대히 진행
- 14 Ⅱ 조선로동당창건 80돐경축 열병식 성대히 거행
- 46 Ⅱ 조선로동당창건 80돐경축 군중시위 및 해불야회 진행
- 58 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80돐에 즈음하여 당창건사적관을 찾으시고 뜻깊은 기념연설을 하시였다
- 62 Ⅱ 조선로동당의 열화같은 숙원에 받들려 솟아오른 인민사랑의 기념비 평양종합병원 준공식 성대히 진행
- 68 Ⅱ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 성황리에 개막
- 74 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 2일 참관일정에 따라 개막식참가자들과 함께 구축함 《최현》호를 돌아보시였다
- 80 Ⅱ 조선로동당창건 80돐경축 국가연회 진행
- 82 Ⅱ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인민 민주주의공화국 주석 통론 씨쑤릿동지를 환영하는 의식 진행
- 84 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통론 씨쑤릿동지와 회담하시였다
- 86 Ⅱ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또 럽동지를 환영하는 의식 진행
- 88 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또 럽동지와 회담하시였다
- 90 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리강동지를 접견하시였다
- 92 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로씨야정당 《통일로씨야》 위원장 드미트리 메드베제브동지를 접견하시였다
- 94 Ⅱ 조선로동당창건 80돐경축 로씨야예술인들의 공연 진행
- 96 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80돐 경축 행사참가자들과 보장성원들을 축하격려하시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함께 관람하시였다
- 100 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80돐을 성대히 경축한 영광을 안으시고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 102 Ⅱ 조선로동당창건 80돐을 뜻깊게 경축

표지: 조선로동당창건 80돐경축 열병식 주석단에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뒤표지: 조선로동당창건 80돐경축 열병식
 편집: 변일진, 김규성, 승룡



우리 인민은 성스러운 창당의 리념과 정신으로 승리와 영광의 80성상을 빛내여온 조선로동당의 창건절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80돐 경축대회 성대히 진행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국가건설의 전면적통성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고있는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은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향도의 우리 당,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창건절을 전인민적대경사로 가장 뜻깊게 맞이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80돐 경축대회가 10월 9일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대회가 진행될 5월1일경기장에는 가장 간고하고 시련에 찬 조선혁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인도하며 우리 국가의 불멸할 존위와 명예, 영웅성을 력사의 거봉에 떠올린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80성상에 드리는 인민의 다함없는 축원의 마음이 뜨겁게 넘쳐흐르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경축대회에 참석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자 축포탄이 터져올라 평양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탁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비범한 령도력

으로 혁명적당건설의 일대 전성기,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위대한 새시대를 펼쳐주시고 전국이 변하고 흥하는 인민의 리상사회건설의 전면적발전기를 열어나가는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걸출한 수령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최대의 경의를 삼가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군중을 향해 따듯이 손저어주시면서 일편단심 우리 당을 믿고 받들며 굴할줄 모르는 투지와 성실한 애국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값비싼 번영의 재부들을 안고 10월명절을 의의깊게 맞이한 전당의 당원들과 전국인민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 온 나라 인민들의 한결같은 축원의 마음을 담아 귀여운 어린이들이 향기그득한 꽃다발을 삼가 드리였다.

조선로동당창건 8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여러 나라 당 및 정부수반들과 인사들, 대표단, 해외동포축하단 단장들에게 어린이들이 꽃다발을 드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간부들에게 어린이들이 꽃다발을 드리였다.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중요직책에서 오랜 기간 사임하여온 로간부들이 경축대회에 초대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80돐 경축행사참가자들과 충성의 편지 이어달리기참가자들, 성, 중앙기관 일군들, 무력기관 장병들, 평양시안의 일군, 근로자들, 청년학생들, 재일본조선인 축하단,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 국제고려인사회련합회 축하단을 비롯한 해외동포축하단, 대표단 성원들, 해외동포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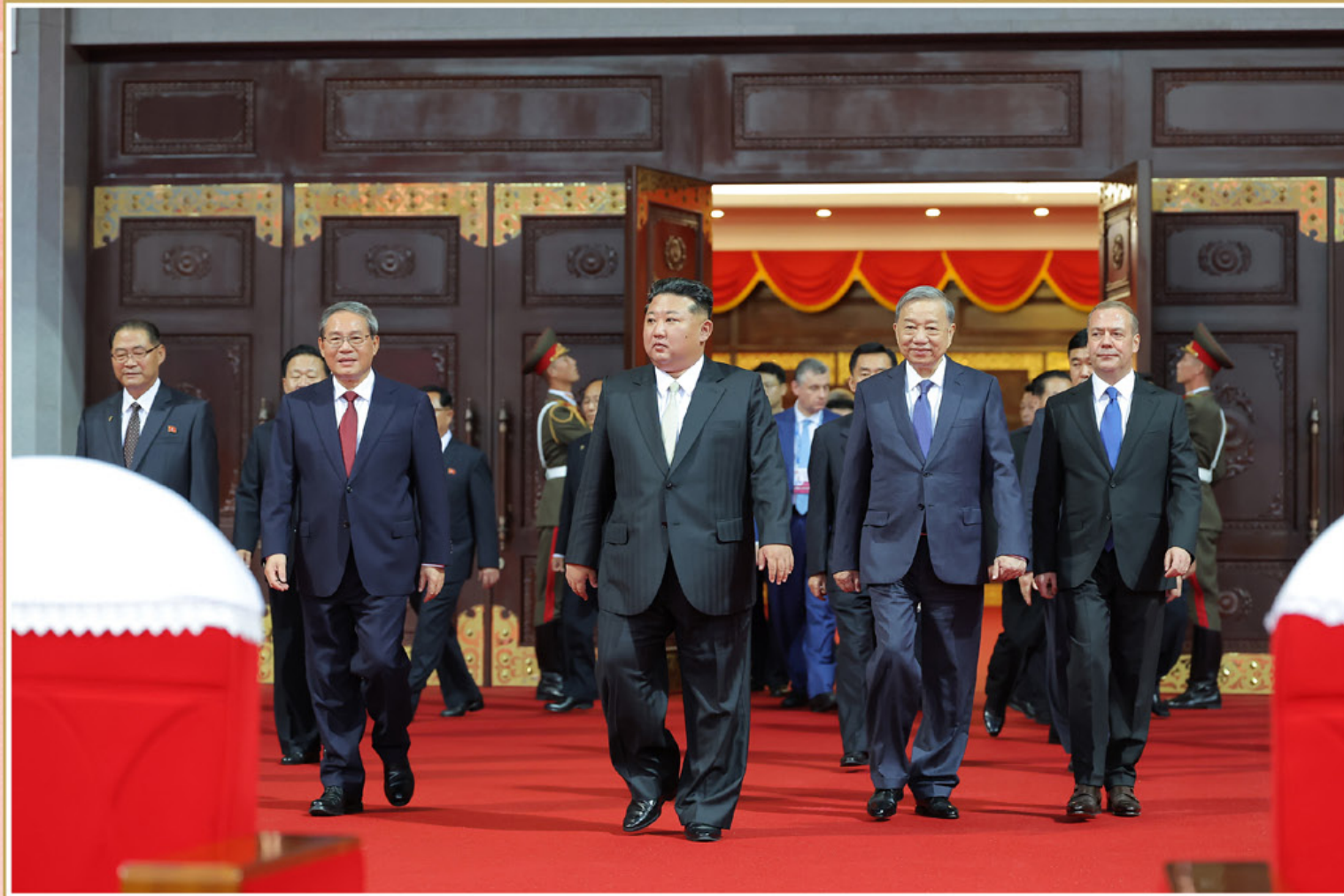
세계 여러 나라 당 및 정부대표단, 국제민주단체, 주체사상 연구조직대표단 성원들, 우리 나라 주재 외교대표들, 해외 연고자가족들, 외국손님들이 초대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와 조선로동당기를 게양하는 의식이 진행되였다.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이 세상 다할 때까지 열렬히 사랑하고 무궁토록 빛내여갈 애국의 마음을 더욱 굳게 가다듬으며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우리 국가의 자주적존엄과 영원한 승리의 상징인 성스러운 국기와 영광의 당기를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기념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80돐은 그 장구한 세월



조국과 인민, 시대와 역사앞에 쌓아올린 불멸의 공적으로 빛나고있다고 하시면서 개척도 위대하고 계승도 위대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창당사와 혁명령도사에 대하여 개괄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을 위한 역사,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온 역사, 여기에 우리 당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비결이 있으며

우리 당의 80년사는 인민의 역사로써만 가장 정확히 대변할수 있고 그 줄기찬 향토사와 불후의 업적은 인민과 함께라는 불멸의 대명제로써만 그 비결을 가장 공정하게 설명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위업의 만대의 승리와 성공을 담보하는 모든 중대한 사변들의 주인공들은 영웅적인 로동계급과 농업 근로자들, 지식인들을 포함한 이 나라 전체 인민, 위대한 조선

인민이라고 긍지높이 언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언제나 인민에 대한 사랑을 깊이 간직하고 보답의 의무를 잊지 않을것이며 인민의 믿음에 충실하기 위해 더 열심히 분투할것임을 굳게 확인하시면서 우리 당을 지지해주는 인민을 믿고 인민과 항상 일심일체가 되어 반드시 이 나라를 더욱 풍요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회주의락원으로 일떠세울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인민이 한뜻이 되고 한몸이 되어 개척하고 승리로 빛내여온 위대한 80년에 이어 보다 영광스럽고 긍지높을 위대한 역사의 총화를 위하여, 우리 인민의 꿈과 이상이 실현될 사회주의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위하여 용기 백배, 신심도 드높이 나아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혁명적당 건설의 본보기적귀감을 창조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전 로정을 기적과 번영의 기념비적년대기로 빛내여온 성스러운 우리 당의 80년사를 자랑스럽게 총화하고 우리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의 필연성, 더 밝고 창창할 미래에 대한 확신을 백배해주는 **김정은**동지의 열정적인 연설은 장내를 세찬 격정으로 끓게 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향도의 우리 당을 따라 전면적국가부흥의 활로를 힘차게 열어나가며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이 세상 가장 강대하고 존엄높은 나라로 그 위용 만방에 펼쳐갈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으로 터져올랐다.

조선로동당창건 80돐 경축대회는 위대한 우리 당, 우리 국가와 인민의 최고대표자이시고 주체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일심충성으로 받들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반드시 이룩하고야말 전체 참가자들의 혁명적기개와 충천한 열의가 차넘치는 속에 진행되였다.

위대한 당중앙의 두리에 전당과 전체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사회주의 오직 한길로 용기백배,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앞길에는 언제나 불멸할 승리와 영광만이 빛날것이다.

조선로동당창건 80돐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조선로동당 만세》 성대히 진행



성스러운 창당의 리념과 정신으로 승리와 영광의 80성상을 청사에 빛내여온 향도의 우리 당을 우리러 인민이 터치는 다함없는 칭송의 노래가 조국강산에 끝없이 울려 퍼지는 속에 10월 9일 저녁 5월1일경기장에서는 조선로동당 창건 80돐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조선로동당 만세》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높이 최장의 사회주의집권사를 아로새긴 조선로동당의 절대적존위를 떠올리며 당창건 80돐 상징마크가 찬연히 빛나고 우리 당의 뿌리인 《ㄷ.ㄷ》의 불길인양 거세찬 봉화가 타오르는 속에 대집단체조와 예술 공연의 서막이 장엄하게 열리였다.

백두의 붉은기폭에 인민의 운명을 품어안고 인민의 모든 리상실현을 창당의 리념으로 내세운 80년전 그날로부터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뚫고 헤치며 순간의 변침도 없이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숭고한 천만리를 이어온 진정한 인민의 당,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력사가 대서사시적화폭 으로 펼쳐졌다.

후대육성을 제1의 국사로 내세우시고 위대한 사랑과 헌신 으로 조국의 창창한 미래를 가꾸어가시는 아버지원수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모든 꿈과 희망을 꽃피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는 새세대들의 밝고 행복넘친 모습들이 장내를 무한한 감격과 희열로 끓어번지게 하였다.

온 나라 어린이들과 학생소년들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담아 어린이들이 김정은원수님께 축원의 꽃다발을 삼가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기쁨과 행복에 겨워 《세상에 부럼 없으라》의 노래를 목청껏 합창하는 전체 출연자들에게 따뜻한 축복을 보내시였다.

인민의 자주적존엄과 참다운 삶이 담보되는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더욱 굳건히 지키고 영원히 충심다해 받들어갈 애국충정이 뜨겁게 끓이치는 속에 힘있는 종합군악례식이 진행되였다.

절세위인들의 거룩한 손길아래 즐기치게 장성강화되여 온 주체의 혁명강군, 희세의 천출명장을 높이 모신 세계



최강의 조선인민군의 전투적기백을 배경화상과 체조와 무용으로 형상하면서 출연자들은 강력한 힘만이 정의와 평화수호의 굳건한 담보이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후손 만대의 평안과 번영을 위하여 우리는 무비의 전쟁억제력을 더욱 억세게 키워나갈것임을 실감있게 보여주었다.

우리 시대, 우리 세대의 명예를 걸고 조선사람의 슬기와

담력으로 부국강병의 대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말 철석의 신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찬란한 미래를 향해 힘차게 용진해갈 우리 인민의 혁명적의지가 구절마다 높뛰는 《우리는 조선사람》의 노래와 해불체조로 공연은 절정을 이루었다.

우리 당과 국가의 위대한 존엄이시고 절대적힘이신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받들어 싱스러운 붉은 당기를 백승의 기치로 높이 휘날리며 강대한 사회주의조국을 천만년 빛내어나가려는 온 나라 인민의 강렬한 지향과 열의를 힘있게 과시한 공연은 축포의 눈부신 화광이 발산하는 속에 종곡 《우리의 국기》로 끝났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의 거룩한 80성상과 당의

위업의 정당성과 필승불패성을 대서사시적화폭으로 훌륭히 펼쳐보인 공연성과에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전체 출연자들에게 뜨거운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었다.

조선로동당 만세

80



조선로동당창건 80돌경축 열병식 성대히 거행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억척으로 떠메고 가장 정의로운 사명과 위대한 리상을 실현해나가는 전투적행토에 세계 최강의 사회주의집권사를 아로새긴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80성상이 승리의 령봉으로 거연히 빛을 뿌리고있다.

창당의 리념과 정신을 순결하고 완벽하게 계승하며 인민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속에 부국강병의 대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온 우리 당창건 80돐은 탁월한 혁명사상과 령도로 위대한 국가와 위대한 인민의 존위와 명함을 세기의 정상에 올려세운 만고불후의 업적으로 눈부신 영광의 기념비로 된다.

조선로동당창건 80돐경축 열병식이 10월 10일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되였다.

열병광장과 잇닿은 대통령들에는 공화국무력의 각 군종, 병종종대를 비롯한 도보종대들과 첨단장비종대들이 엄숙히 정렬해있었다.

열병식주악을 맡은 관록있는 공훈국가합창단 관현악단이 입장하였다.

열병식의 서막을 장식하며 혁명군가의 박력있고 기백 넘친 곡조로 관중들의 심금을 울리는 종합군악대의 레식이 진행되였다.

군악대원들의 변화무쌍한 룰동태형과 녀성군도수들의 특색있는 군도기교동작에 이어 소고수들과 명예위병들이 능란하고 채치있는 소고 및 무기기교를 펼쳐보이였다.

군악레식이 끝나자 열병종대들이 불야경을 이룬 광장으로 위풍당당히 입장하였다.

위대한 당중앙의 사상과 령도에 절대충성, 절대복종하는 결사옹위의 전위대오, 천하제일강군의 기상이 열병대원들의 름름한 모습과 틀어잡은 무장마다에 융솟음쳤다.

조선인민군 각급 련합부대 군기들이 입장하였다.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혁명의 제일군기로 추켜들고 당과 수령의 군대라는 성스러운 부름에 언제나 충실하며 전설적인 승리와 기적의 년대들을 떠받들어온 영웅군대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히 울리는 속에 성스러운
국가가 서서히 올라 김일성광장상공에 휘날리었다.
조선로동당창건 80돐을 경축하여 21발의 레포가 발사되였다.





금지높은 연혁이 깃든 영광의 군기들이 열병광장을 덮으며 들어섰다.

국가수반을 영접하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영접 의식이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와 각급 련합부대군기들을 사열하시였다.

김정은동지를 국방성 지휘관들과 조선인민군 군중, 대련합부대 군정지휘관들이 정중히 영접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나라 당 및 정부수반들과 함께 열병광장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고 경축의 축포가 10월의 밤하늘에 황홀한 불꽃바다를 펼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열병식참가자들과 관중들에게 손저어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 도당위원회 책임비서들, 군부의 주요지휘성원들, 해외동포축하단 단장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국가의 중요직책에서 오랜 기간 사업한 로간부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조선로동당창건 80돐 경축행사참가자들과 우리 나라를 축하방문하고있는 여러 나라 당 및 정부대표단, 국제민주단체,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성원들, 우리 나라 주재 외교대표들, 해외연고자가족들, 외국손님들이 초대석에 자리잡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와 외국의 당 및 정부수반들에게 소년단원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드리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게양식이 진행되였다.

국기호위대가 조선인민군 각급 련합부대 군기들의 경례를 받으며 국기를 옹위하여 엄숙한 발걸음으로 게양대로

향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히 울리는 속에 성스러운 국가가 서서히 올라 **김일성**광장상공에 거세차게 휘날리였다.

조선로동당창건 80돐을 경축하여 21발의 례포가 발사 되였다.

우리 당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80년, 창조와 변혁의 80년을 긍지높이 되새겨주는 례포소리가 열병광장을 뒤흔 들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80돐 경축열병의식에 초대된 각계층의 손님들과 여러 나라의 친근한 벗들을 열렬히 환영하시고 영광의 10월을 향하여 창조와 로력의 고귀한 땀을 바치고 진정을 고여온 온 나라 전체 인민들, 인민군장병들과 열병대원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인도해온 혁명의 년대기들에 고결한 피와 땀, 값비싼 희생으로 당을 보위하고 혁명 위업의 명맥을 사수하였으며 당의 령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실현한 조선인민군의 특출한 공적에 대하여 값높이 평가

하시면서 우리 혁명무력의 성스러운 창군세대인 항일선렬들과 원로들, 숭고한 애국정신과 영웅적투쟁으로 혁명의 년대마다 우리 당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온 로병들과 전세대 장병들에게 뜨거운 경의를 표시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군대가 앞으로의 투쟁에서도 당의 사상과 의지로 일관된 정병대로,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병대로, 사회주의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침병대로, 오늘처럼 당당한 자격과 명예를 계속 빛내여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우리 공화국과 우리 인민의 영원한 승리를 위하여, 조선인민군의 강대함과







최강의 전투집단인 특수작전군종대와
그 어떤 방어선도 물거품으로 만드는

상륙돌격대대종대



적의 심장부를 무찌르는 멸적의 비수
적후산악활동부대종대



**막강한 공격력과 믿음직한 방호체계를 갖춘
현대식주력탱크 《천마-20》형중대**



빛나는 영예를 위하여 더 힘차게 싸워나아가자고 절절히 호소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의 사랑과 무한한 헌신으로 거룩한 존엄과 영예, 무궁한 번영과 행복을 안아오시는 위대한 령장을 높이 모시고 언제나 혁명의 전위에서 무비의 전투정신을 과감히 펼쳐 나갈 우리 혁명무력의 신념과 철석의 의지가 열광의 환호성

으로 터져올랐다.

이어 열병식준비검열이 진행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노광철대장이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원수에게 열병부대들이 열병식준비검열을 받기 위하여 정렬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박정천원수가 열병부대들을 점검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동지께 박정천원수가 당창건 80돐



경축 열병식이 준비되었음을 정중히 보고드리었다.

공화국무력의 열병종대들이 국방상 노광철대장을 선두로 장엄한 행진을 시작하였다.

항일의 오중훈7련대상징종대가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신뢰심을 명줄처럼 간직하고 수령옹위의 빛나는 전통을 창조한 항일혁명투사들의 초상사진을 들고 앞장에서 나아갔다.

포연서린 군기를 나뭇기며 주로에 들어서는 조국해방 전쟁시기 근위부대상징종대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적 구상을 높이 받들어 세계전쟁사가 알지 못하는 승진신화를 창조한 항일빨찌산출신의 맹장들과 전화의 육탄영웅들의 불굴의 군상이 빛나고있었다.

전대미문의 운명적인 국난들을 딛고 넘어야 했던 존엄한 혁명의 년대마다 수령의 사상과 권위를 견결히 옹호보위



하는데 특출한 공헌을 한 충신지휘관들의 모습을 간직하고 근위 서울제105기계화사단상징종대, 고난의 행군 시기 오중흙7련대칭호를 쟁취한 부대상징종대가 발구름 높이 행진해갔다.

상징종대들의 뒤를 이어 명예기병종대, 당중앙위원회 호위처종대, 국무위원회 경위국종대를 비롯한 친위부대 종대들이 힘찬 발걸음을 내짚었다.

일선야전무력 열병종대들의 선두에는 장검을 비껴든 군단장들과 사단장, 려단장들이 서있었다.

해군종대와 공군종대가 군중사령관들을 위시하여 기세 드높이 광장을 활보해갔다.

적의 심장부를 무찌르는 멸적의 비수 적후산악활동부대 종대, 그 어떤 방어선도 물거품으로 만드는 상륙돌격대대

주체조선의 첨단병기 600mm방사포종대





우리 국가의 무진무궁한 국방기술적잠재력과 경이적인 발전속도를 과시하며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종대, 무인기발사차종대, 지상대공중, 지상대지상미사일종대들이 련이어 진군화폭을 펼치였다.

종대와 함께 조국의 명예와 존엄을 지켜 전투적용맹과 전설적군공으로써 조선인민군의 위대한 새 역사를 창조하고 조선사람의 기개를 남김없이 펼친 무적의 해외작전 부대종대가 위대한 령장의 사열을 받으며 위풍당당히 주석단

앞을 지나갔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무비의 용감성으로 우리 공화국의 신성한 주권과 우리 인민의 명예를 굳건히 수호해나가고있는 정예부대들에 전투적

경례를 보내시였다.

우리 혁명무력의 위엄과 기개가 하늘을 찌르는 열병광장으로 수도 평양의 방어임무를 맡은 군단종대들, 조국의 해안과 후방의 중심을 굳건히 지켜선 군단종대들과 국경

관문의 수비를 담당한 국경경비총국종대가 기운차게 전진해갔다.

높은 기동력과 압도적인 타격력을 갖춘 특군의 강력한 공격집단인 땅크장갑사단, 기계화보병사단종대들, 정찰



정보총국종대와 저격수종대, 통신병종대를 비롯한 전문병, 근무병종대들에게도 원썩격멸의 의지가 서리발쳤다.

주체군사교육의 최고전당인 김일성군사종합대학종대, 최고급군사지휘관육성의 중심기지인 김정일군정대학종대, 당의 정치사상강군화로선관철의 기본거점, 우리 군대의 영웅성을 키우는 원종장인 김일성정치대학종대, 공화국 최고의 국방과학기술학원인 김정은국방종합대학종대에 이어 각급 군사학교종대들이 우리 혁명무력의 영원한 강대함과 백전필승을 억척으로 담보해나갈 맹세를 담아

러치는 함성이 경축광장을 진감하였다.

국가보위성종대, 사회안전군종대, 사회안전특별기동대종대가 수령보위, 체도보위, 인민보위의 전초를 믿음직하게 지켜갈 일념안고 용기백배하여 전진해갔다.

주체혁명의 원피줄기를 굳건히 이어갈 기둥감들로 역세계 준비해가는 혁명학원종대들의 씩씩하고 담찬 행진에 관중들은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견결한 혁명정신, 높은 과학기술력과 불굴의 창조본때로 국가방위력의 무진한 발전과

극초음속중장거리 전략미사일종대





강군현대화를 담보해나가는 국방과학원종대가 힘찬 보무를 내질었다.

우리 당이 굳건하고 우리 국가가 강대한것은 무적의 정규군과 함께 위력한 민간무력을 가진데 있음을 과시하며 로동적위군종대와 소년근위대종대가 활기찬 보무로 도보종대의 마감을 장식하였다.

힘과 힘의 대결이 국가와 인민의 생사존망을 결정하는 오늘의 엄혹한 세계에서 만년을 뚫고 국방력강화를 순간의 정제도 없이 밀고나가 급진적인 도약을 안아온 우리 당의 자위국방건설업적의 산아인 기계화종대들이 장엄한 열병진군을 개시하였다.

막강한 공격력과 믿음직한 방호체계를 갖춘 현대식주력 탱크 《천마-20》형종대에 이어 우리 군대의 제1병종인 포병무력의 강세를 보여주는 155mm자행평곡사포종대가 멸적의 포신을 추켜들고 광장을 누벼나갔다.

적의 주요목표들을 정밀타격하는 새세대 핵심공격무기체계들과 세상에 유일무이한 주체조선의 첨단병기인 600mm 방사포종대의 흐름이 도도히 굽이치자 관중들은 박수갈채를 보내며 열렬히 환호하였다.

세계가 무시할수 없는 우리 국가의 무진무궁한 국방기술적잠재력과 경이적인 발전속도를 과시하며 장거리전략

순항미사일종대, 무인기발사차종대, 지상대공중, 지상대 지상미사일종대들이 련이어 진군화폭을 펼치였다.

극초음속활공미사일과 극초음속중장거리전략미사일종대들이 진군해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강의 핵전략무기체계인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20》형종대가 주로를 메우며 광장에 들어서자 관중들이 터치는 열광의 환호는 고조를 이루었다.

열병식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고 경축의 축포가 황홀한 불보라되어 10월의 밤하늘에 끝없이 터져올랐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관중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창건 80돐경축 열병식은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당, 조선로동당이 있어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불멸의 존엄과 위상이 있고 위대한 우리 인민의 영웅적인 삶과 미래가 있으며 위대한 우리 군대의 명성과 백전백승이 있음을 세계앞에 보여준 대정치군사축전으로, 당의 위업을 세월의 끝까지 일심충성으로 받들어나갈 천만군민의 억척불변의 의지를 만천하에 과시한 력사적사변으로 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강의 핵전략무기체계인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20》형종대





조선로동당 창건 80돐 경축 군중시위 및 해불야회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80돐경축 군중시위 및 화불야회가 10월 11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었다.

국가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박태성동지, 최룡해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이 주석단에 등단하였다.

국가의 중요직책에서 오랜 기간 사업하여온 로간부들과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 지휘관들,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해외동포축하단, 대표단 성원들, 해외동포들과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외국손님들, 우리 나라 주재 외교대표들이 경축행사에 초대되었다.

조선로동당창건 80돐 경축행사참가자들과 충성의 편지 이어달리기참가자들, 성, 중앙기관을 비롯한 평양시안의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 근로자들이 초대석에 자리잡았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주창일동지의 발언이 있었다.

《인민은 우리 당에 영광드리네》의 노래선물이 장중하게 울려퍼지는 속에 조선로동당상징탑을 형상한 가장물을 선두로 군중시위가 시작되었다.

장장 80성상을 이어온 현대조선의 력사가 어떻게 존엄과 영예의 절정에서 빛날수 있었는가를 새겨주며 영광넘친 투쟁의 년대들을 상징하는 시위대렬들이 련이어 나아갔다.

군중시위가 끝나자 오색령롱한 축포탄들이 연해연방 날아올라 아름다운 불꽃바다를 펼쳐놓았다.

이어 청년학생들의 화불야회 《조선로동당의 후비대, 애국청년들 앞으로!》가 진행되었다.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시대의 주인공으로, 영웅청년 신화의 창조자로 값높은 삶을 빛내여가는 청년전위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차넘치는 야회장에 조선혁명의 백승의 표대인 조선로동당마크가 새겨지고 당중앙을 결사옹위 해갈 계승자들의 억척불변한 신념이 드넓은 광장에 거대한 화불원을 이루며 경축의 밤을 환희롭게 밝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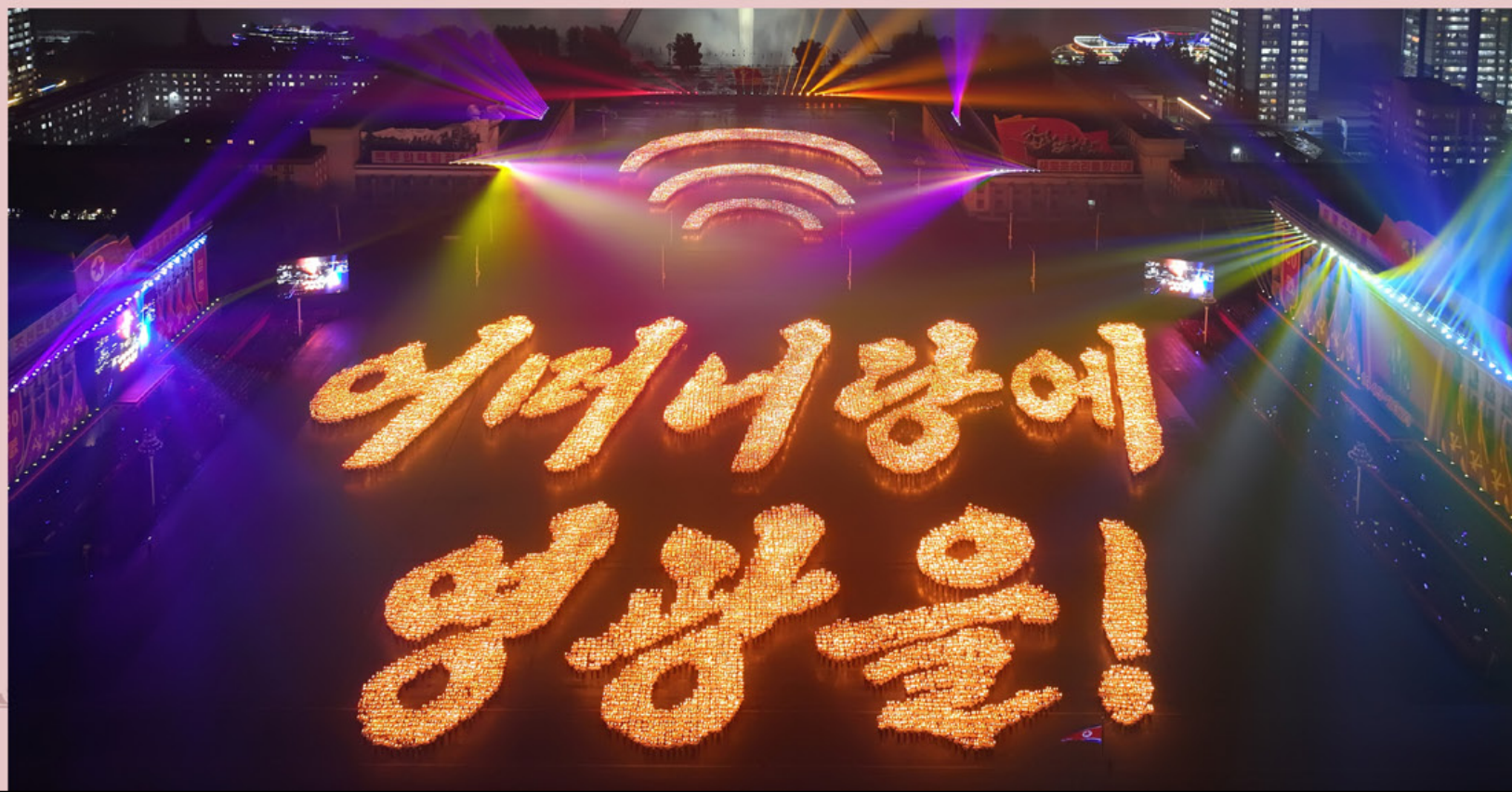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축포란들이 날아올라 수도의 밤하늘을 황홀하게 물들이는 가운데 당의령도는 청년운동의 제일생명이며 피줄기라는 철리를 깊이 간직한 청년전위들이 조선로동당마크와 《제일결사대》, 《어머니당에 영광을!》 등의 글발들을 새긴 화불의 흐름으로 야회마감을 뜻깊게 장식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80돐경축 군중시위와 화불야회는 당과 인민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 국가특유의 일심단결의 참모습과 양양한 전도,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강대하고 부림없는 인민의 리상사회를 건설해나아가는 사회주의 조선의 불패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80돐에 즈음하여 당창건사적관을 찾으시고 뜻깊은 기념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창건 80돐에 즈음하여 10월 8일 당창건사적관을 찾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뜻깊은 기념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창건 80돐을 앞두고 조선로동당

의 백전백승사가 시작되였고 사회주의국가에로의 출발을 인도한 조선혁명의 최고참모부가 자리잡았던 고향집을 찾은 감회를 피력하시면서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의 혈로를 헤치며 혁명적당건설의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고 당창건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하였으며 우리 당의 영구존립과 승승발전에 튼튼한 초석을 고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항일혁명선열들에게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발전과 번영을 마주한 분수령

에서 당창건 80돐을 맞게 되는 특별하고도 경사스러운 시각 창당과 계승의 년대기를 돌이켜보는것은 선열들이 시작하고 전진시킨 사회주의위업의 종착점에 반드시 가닿아야 할 우리 세대의 혁명적의무와 본분에 대한 재인식, 재각성



으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80년사가 위대한것은 창당 자체도 독창적이지만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을 위한 사회주의 리념을 자기의 기치에 뚜렷이 새기고 그것을 변함없이 고수해왔기때문임을 밝히시고 창당의 첫 기슭에서부터 철두철미 주체사상과 자기 인민을 믿고 인민의 힘에 의거하는 자생자결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여온 우리 당특유의 려정에 대하여서와 우리 당이 사회주의 운동력사상 최장의 집권사를 아로새겨올수 있는 근본비결과 당건설의 기본특징, 인류정당사에 아로새긴 특출한 공적에 대하여 론술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역경과 시련을 승리와 기적으로 반전시키는 행정에서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사상적혈통, 특유의 혁명전통을 형성하였으며 만대에 불멸할 승리의 철리와 고귀한 정신적재부를 남긴 조선로동당의 파감한 령도력과 투쟁방식은 현세대가 걸어가고 우리 후대들이 이어갈 승리와 영광의 로정을 비쳐주고있다고 하시면서 제2의 건국시대와 같은 전면적발전기에 우리 당이 국가건설과 당의 강화발전

에서 전망하는 리상과 목표, 그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방향과 제반 원칙에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두세기를 이어온 당의 로정을 창당이 이루어진 력사의 집에서 회억할수 있고 그 위대한 로정을 무궁토록 역세계 이어놓을 결의를 다지는것은 참으로 자부스러운 일이라고 하시면서 당창건사적관이 조선로동당의 혈맥과 백승의 전통을 천추만대로 이어놓는 성스러운 전당으로 길이 빛날것임을 확인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사적관의 여러곳을 깊은 감회속에 돌아보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창건사적관 일군, 강사,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당건설업적이 깃들어있는 성지를 지켜선 남다른 긍지와 자부를 안고 앞으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대중에게 체득시키는 힘있는 선전자, 교양자로서의 본분에 충실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의 열화같은 숙원에 받들려 솟아오른 인민사랑의 기념비 평양종합병원 준공식 성대히 진행



참다운 인민의 당, 조선로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리념이 구현된 전면적문명개화의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있는 속에 평양종합병원이 력사적인 보건혁명의 원년을 빛나게 장식하며 사회주의보건의 상징물로 훌륭히 완공되었다.

보건부문의 획기적이며 새로운 질적인 변화로써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키고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행복넘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기울인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에 의하여 평양종합병원이 당창건 80돐을 계기로 준공하게 된것은 위대한 당중앙의 또 하나의 숙원이 성취된 특기할 사변이다.

평양종합병원 준공식이 10월 6일 성대히 진행되었다. 준공식장은 온 나라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한품에 안으신 사회주의대가정의 친근하신 아버이를 모시고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대경사를 맞이한 참가자들의 크나큰 걱정과 환희로 설레이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장에 도착하시었다.

준공식에는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간부들을 비롯한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조선로동당창건 80돐 경축행사 참가자들, 건설부대 관병들과 건설자들, 성, 중앙기관의

일군들, 평양종합병원과 평양시안의 의료일군들, 수도시민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을 기념하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결행한 보건혁명수행의 첫 결실인 평양종합병원을 당창건기념일에 인민들에게 선물함으로써 인민을 위한 절대복무의 신성한 본분을 지켜낸 감개함을 피력하시면서 당의 보건발전정책과 결심을 로력적 헌신과 지극한 정성으로 받든 근위부대 지휘관, 병사들과 전체 건설자들, 설계기관 일군들에게 특별감사를 주시고 훌륭한 병원에서 일하게 된 일군들과 의사, 간호원, 종업원

들을 축하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구상하고 강력히 실행해나가는 보건현대화전략의 진수와 보건부문의 갱생과 도약을 목표한 새로운 혁명에서 평양종합병원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하여 밝히시고 보건건설을 강력히 추진하여 나라의 보건을 가까운 앞날에 전면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금후 방향과 제반 과업들을 천명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종합병원이 삶의 양기와 진함없는 활력을 부여주는 집으로, 인민의 건강과 웃음을 지켜주는 전당으로 길이 찬양받기를 축원하시면서 우리 인민을 위하여 더욱 충실히 복무할것을 굳게 확인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근로하는 인민이 마음껏 향유하는 사회주의만복과 더불어 부흥창창할 조국의 미래를 앞당겨오기 위함에 열화의 심혼을 다 바쳐가시는 자애로운 아버지께 드리는 다함없는 경모와 고마움의 정을 열광의 환호성으로 터쳐올리었다.

김정은동지께서 준공테프를 끊으시었다.

사회주의인민보건의 자랑찬 행로에 특기할 불멸의 화폭이 펼쳐진 준공식장을 황홀하게 장식하며 축포탄들이 날아올랐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에게 손저어 답례하시며 사랑하는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따듯이 축복하시었다.

준공식참가자들은 평양종합병원을 돌아보았다.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 성황리에 개막



자위국방을 혁명수호와 발전의 천하지대본으로 내세우고 후세토록 강대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안아오려는 위대한 당중앙의 무비의 결단과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전례와 한계를 초월하여 가속화되는 국가방위력의 발전상을 과시하며 10월 4일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가 수도 평양에서 성황리에 개막되었다.

국가수반을 영접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 개막식장에 도착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와 륜, 해, 공군의 영광의 군기들을 사열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국방과학, 군수공업부문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주석단에

등단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조춘룡동지의 개막사가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뜻깊은 기념연설을 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의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에는 핵억제력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의 군사력 구조를 부단히 현대화, 고도화하여온 중대사업의 최근결실들이 집결되어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이 창당의 첫 기슭에서부터 일관하게 중시하고 자립의 토대를 축적하면서 계속 높은 목표를 향해 줄기찬 발전을 재촉하여온 주체적국방공업이 최근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또다시 이루어낸 위력한 성과들을 우리 인민들에게 선보이는것은 80성상에 이른 당의 력사적행로에 대한 가장 훌륭한 칭송으로 될것이라고 긍지높이 말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것을 절대사명으로 하여 탄생한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존엄과 안녕, 권익과 미래의 안전을 보장할수 있는 세계최강의 국방공업을 건설하고 중단없이 강화발전시키는데 주력하는것은 웅대한 천직이고 특유의 활동방식으로 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창당과 동시에 개척되고 당의 인도 밑에 승승장구의 일로를 경과하여온 우리 군수공업의 자랑스런 발전력사와 최근년간 현대전의 변화양상에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무장장비들이 새로 개발되거나 개량되고 인공지능기술을 비롯한 최신과학기술들이 적극 도입되어 전쟁수행능력의 견지에서 현행은 물론 미래의 전장에 대한 적응가능성도 확충할수 있게 된 우리식 국방기술발전의 중요특징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의 안전환경을 담보하기 위해 자립적인 토대와 독보적인 발전로정, 고도로 창의적인 개발 방식에 의거하여 지속적인 갱신과 도약에 힘쓰고있는 우리 국방공업의 실상을 이 자리에서 누구나 가늠해볼수 있을것이며 이로써 우리는 제8기 당중앙위원회가 국가와 인민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책임을 다하여 목표했던

바들을 성취한데 대해 긍지를 가지고 총화할수 있게 되였다고 언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있는 안전환경과 그 불안정성은 국가방위력강화에서의 순간의 안도나 자만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와 지역나라들의 안전에 현실적이며 심각한 위협을 조성하고있는 미국의 무력증강책동의 진목적에 대하여 분석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제 우리 국방기술분야에 어떤 새로운 목표들이 제시되고 다음단계에 어떠한 변천양상을 띠고 진화 될것인가를 모두가 곧 알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국가 방위력의 무진막강한 자산들은 정제없이, 더 가속적으로 진화 할것이며 자위적전쟁억제력의 끊임없는 강화를 위한 조선로동당의 위업은 영광스러운 승리적행로를 줄기차게 이어갈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동지께서는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전시회장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건설의 80년사가 총화되고 금후 우리 당이 더욱 결연히 개척해야 할 창조와 변혁의 려정을 그려보는 중대한 시점에서 피타는 심혼과 뜨거운 열애를 바쳐 이룩한 막강한 국방력을 접하고보니 조국과



후대들앞에 매우 책임적인 영광스러운 길을 굴함없이 걸어왔다는 자부를 금할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자립적방위산업의 혁혁한 진보와 비약적으로 광대해진 현대적국방과학기술영역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꺾어보지 못한 모진 시련과 고난속에서도 우리 당의 자위로선을 전무한 강인성과 절대적인 지지성원으로 웅위해준 위대한 우리 인민이 전취한 조선의 힘, 조선의

본때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사로운 조선로동당창건 80돐을 앞둔 온 나라에 격동과 환희를 더해주며 개막된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는 위대한 당중앙이 령도하는 새시대 국방공업혁명의 경이적인 전진발전과 더불어 더더욱 강대무비해질 우리 무장력의 변화상을 예고해주는 의의깊은 계기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 2일 참관일정에 따라 개막식참가자들과 함께 구축함 《최현》호를 돌아보시었다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이 령도하는 강군현대화위업의 비상한 발전경지가 집대성된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의 성대한 개막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강력한 종합적군사력을 과시하며 영광의 10월을 맞이한 온 나라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에게 승리자의 존엄과 자부, 필승의 기상을 백배해주고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0월 5일 무장장비전시회의 참관일정으로 당과 정부, 국방 및 안전기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해군 구축함 《최현》호를 돌아보시었다.

무장장비전시회개막식 참가자들이 함께 참관하였다.

주체적합선공업의 괄목할 최신성과이며 급속히 진화하는 공화국해군무력의 현대성과 선진성, 군사기술적강세의 상징인 구축함이 웅좌하고있는 항만은 위대한 강철의 령장을 또다시 모시는 영광의 시각을 앞둔 참가자들의 크나큰 감격과 환희로 설레이고있었다.

김정은동지의 구축함방문을 환영하는 해군의 영접의식이 진행되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해군명예위병대 대장의 영접보고를 받으시고 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을 사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조춘룡동지의 발언이 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 구축함에 오르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함장의 안내를 받으시며 함에 탑재된 주요무장장비들과 함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창건 80돐을 맞는 력사적인 해에 조국의 바다우에 거연히 떠오른 초강력의 군함은 주체적무장력의 강화발전의 뚜렷한 증시이며 조선로동당의 자위적국방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또 하나의



위대한 실증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구축함해병들이 근무하는 곳곳에서 최현동지의 모습을 볼수 있게 한것은 항일투사의 용맹한 기개와 고귀한 정신이 새세대 해병들의 체취로 이어지고 백절 불굴하는 전투정신의 영원한 자양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라고, 수호자의 최강의 힘은 전함이 운용하는 무장장비의 위력에 앞서 혁명선렬들의 넋을 혈맥처럼 이어가는 사상

적정예화에 있으며 이것이 바로 해군력강화의 중핵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구축함해병들이 함운용을 위한 필수적인 전문가적자질을 충분히 갖추기 위해 분투하고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시면서 《최현》호의 관병들이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 육체적면에서는 물론 새시대의 해병문화, 해군문명을 창조하는데서도 선구자가 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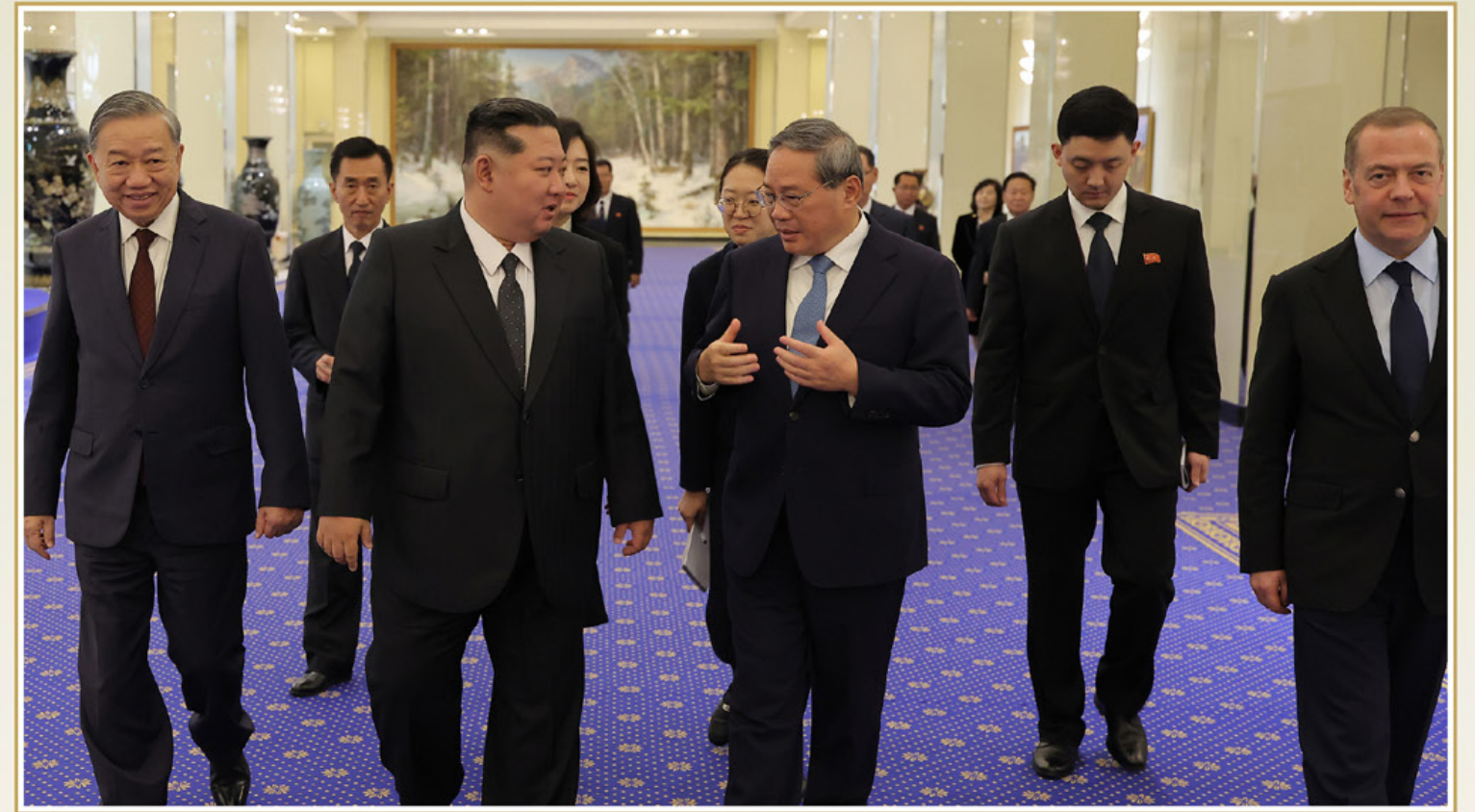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주권과 안전리익을 위하여, 조국의 바다의 영원한 평온을 위하여 우리 해군의 막강한 실력은 적들의 도발을 철저히 억제하고 맞받아 응징할수 있게 광활한 대양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은 국권의 핵심을 지켜선 해군전력의 전면적이고 가속적인 확대장성을 위한 투쟁에서 순간의 정체도 모를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참관자들은 구축함방문을 통하여 우리 당이 령도하는 해군의 발전면모와 해군문화의 높은 경지를 직접 목견하면서 해군강화의 일대 전성기, 그 창창한 미래를 격동속에 체감하였다.

이날 구축함에서는 해군장병들을 위해 당중앙 군사위원회가 마련한 연회가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창건 80돐경축 국가연회 진행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80돐경축 국가연회가 10월 10일 목란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가경축연회에 참석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연회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열렬한 경의의 박수로 환영하였다.

연회에서는 조용원동지가 축배사를 하였다.

조용원동지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경사로운 명절을 함께 경축하기 위하여 평양을 방문한 외국의 친선사절들과 해외동포들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창건 80돐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을 위한 주체혁명의 향도자로서의 역사적사명에 투철해온 우리 당과 당의 위업수행에 무한히 헌신적인 인민이 함께 만들어올린 승리와 영광의 절정이라고 하면서 두세기를 경과하는 자기의 장구한 력사와 공적을 인민과 고락을 같이 하여온 투쟁사로 회억하고 충화하게 되는 우리 당의 크나큰 영예와 보람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외에 그 어떤 다른 강령이나 활동방식을 추호도 허용치 않고 우리 인민들과 후손들이

영원히 존엄과 복락을 누릴수 있는 만년의 토대와 터전을 마련한것으로 하여 우리 당은 전체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승리와 미래는 력사와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견결히 고수발전시켜

나가는 길에 있다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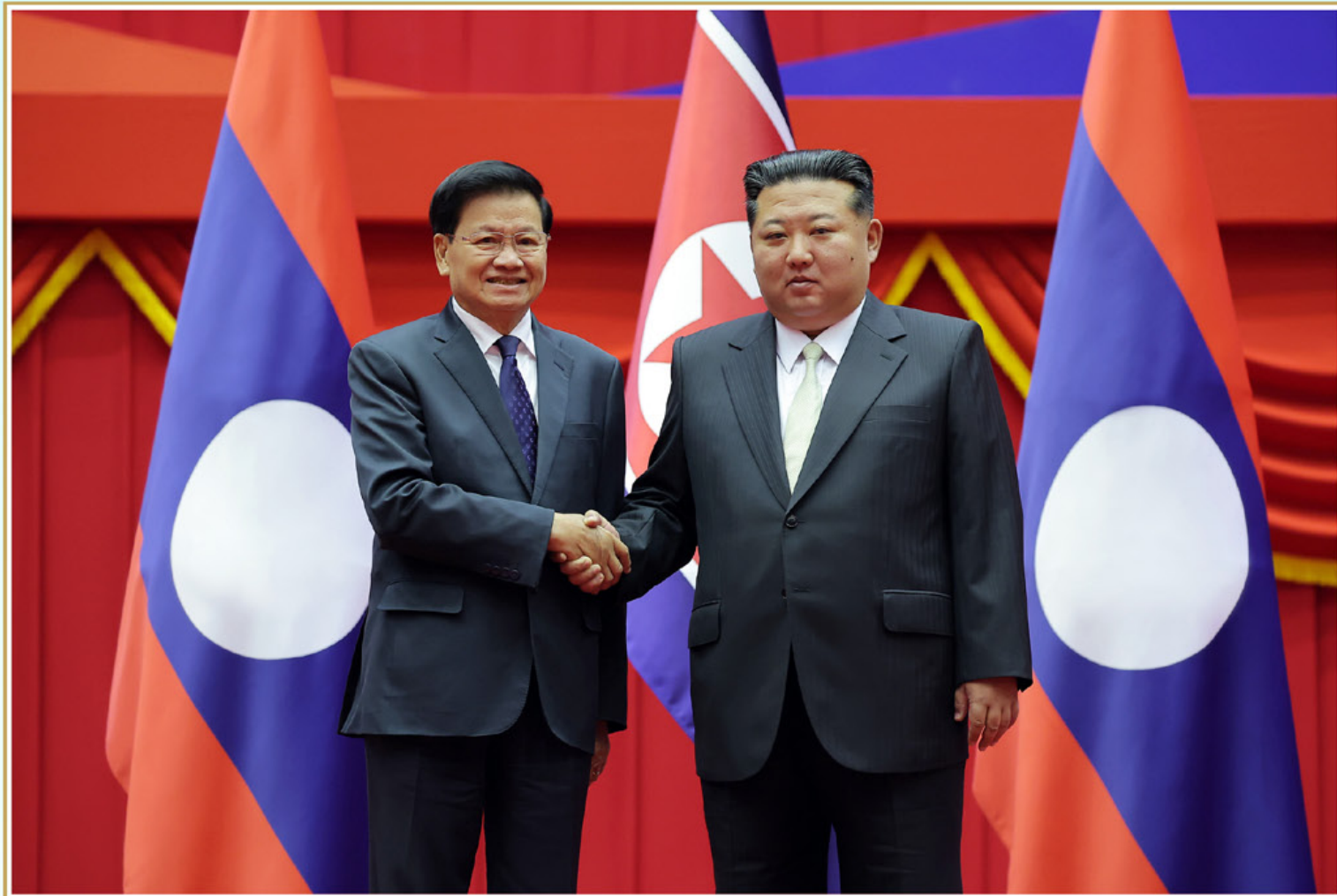
조용원동지는 우리 당은 정의를 사랑하고 우리 위업을 지지하는 친선적인 벗들의 진실한 성원에서 큰 고무를 받고 있으며 자주와 평화를 위한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는데서

서로 긴밀히 련대하고 보조를 같이함에 책임적인 노력을 다 할것이라고 확인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평안과 복리를 위하여 잔을 들었다.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통론 씨쑤릿동지를 환영하는 의식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80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축하방문하는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인 통론 씨쑤릿동지를 환영하는 의식이 10월 7일 진행되었다.

환영의식장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와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국기가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환영의식장에 나오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통론 씨쑤릿동지와 반갑게 상봉하시고 두 나라 국기를 배경으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통론 씨쑤릿동지에게 영접나온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간부들을 소개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정부부수상 겸 안전보위상인 위라이 라캄홍동지,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외무상 통싸완 품비한동지를 비롯한 라오스측 수행간부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통론 씨쑤릿동지와 함께 사열대에 오르시었다.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국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는 속에 21발의 레포가 발사되었다.

김정은동지의 안내를 받으며 통론 씨쑤릿동지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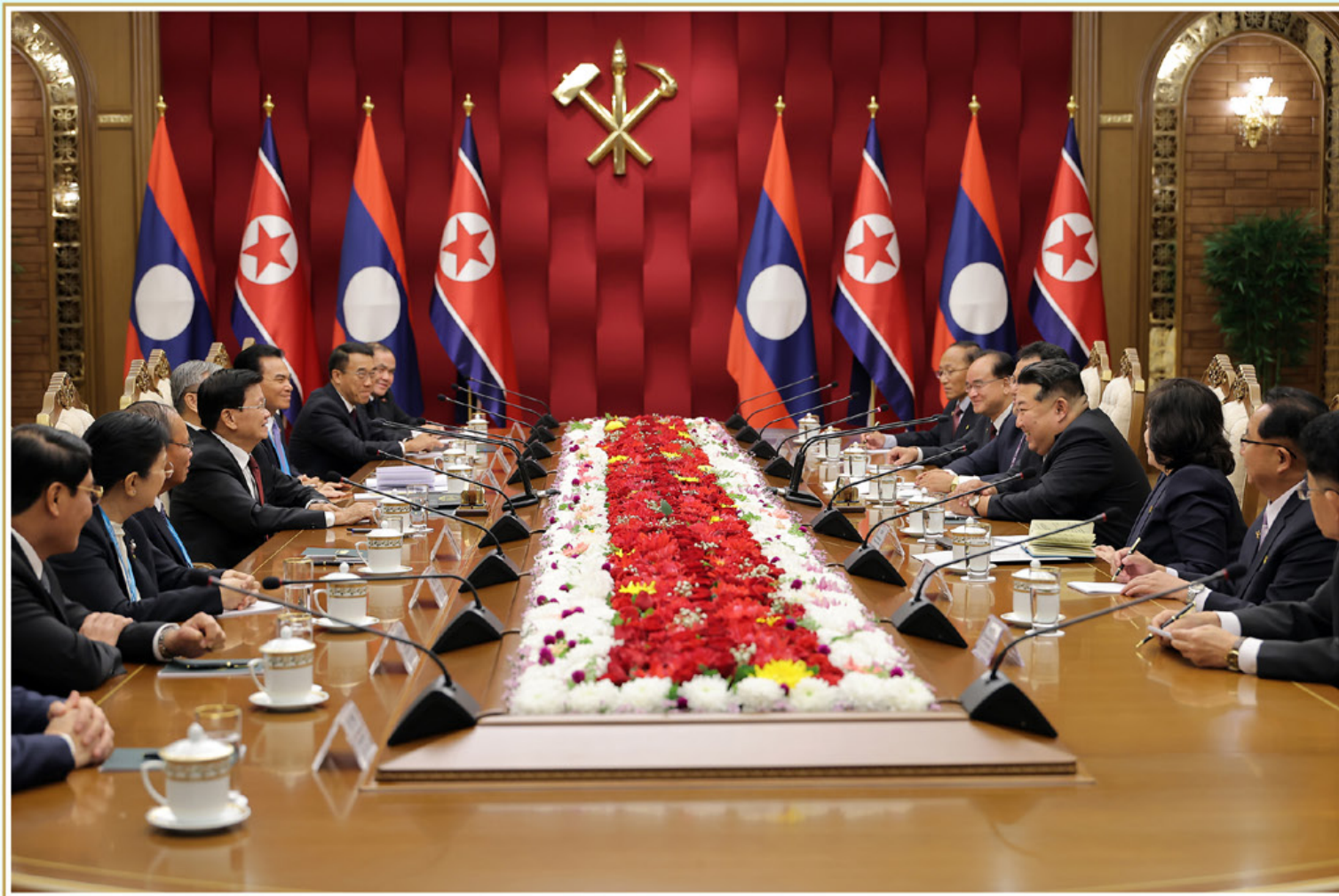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창건 80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축하방문한 통론 씨쑤릿동지를 열렬히 환영하시면서 상봉의 기쁨을 피력하시었다.

통론 씨쑤릿동지는 14년만에 또다시 평양을 방문한 소감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조선로동당과 정부, 인민의 극진한 환대에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통룬 씨쑤릿동지와 회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0월 7일 조선로동당 창건 80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축하방문하고있는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라오스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주석인 통룬 씨쑤릿동지와 회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통룬 씨쑤릿동지의 평양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면서 통룬 씨쑤릿동지의 이번 방문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업에 대한 라오스당과 정부, 인민의 전적인 지지와 고무의 표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은 라오스당과 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들이 이룩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였다.

통룬 씨쑤릿동지는 창건 80돐을 의의깊게 맞이하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 인민에게 보내는 라오스인민 혁명당과 정부, 인민의 열렬한 축원과 동지적인사를 전하

면서 라오스는 언제나 형제적조선인민의 가까운 벗이며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계속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라오스국가지도부의 일관한 립장이라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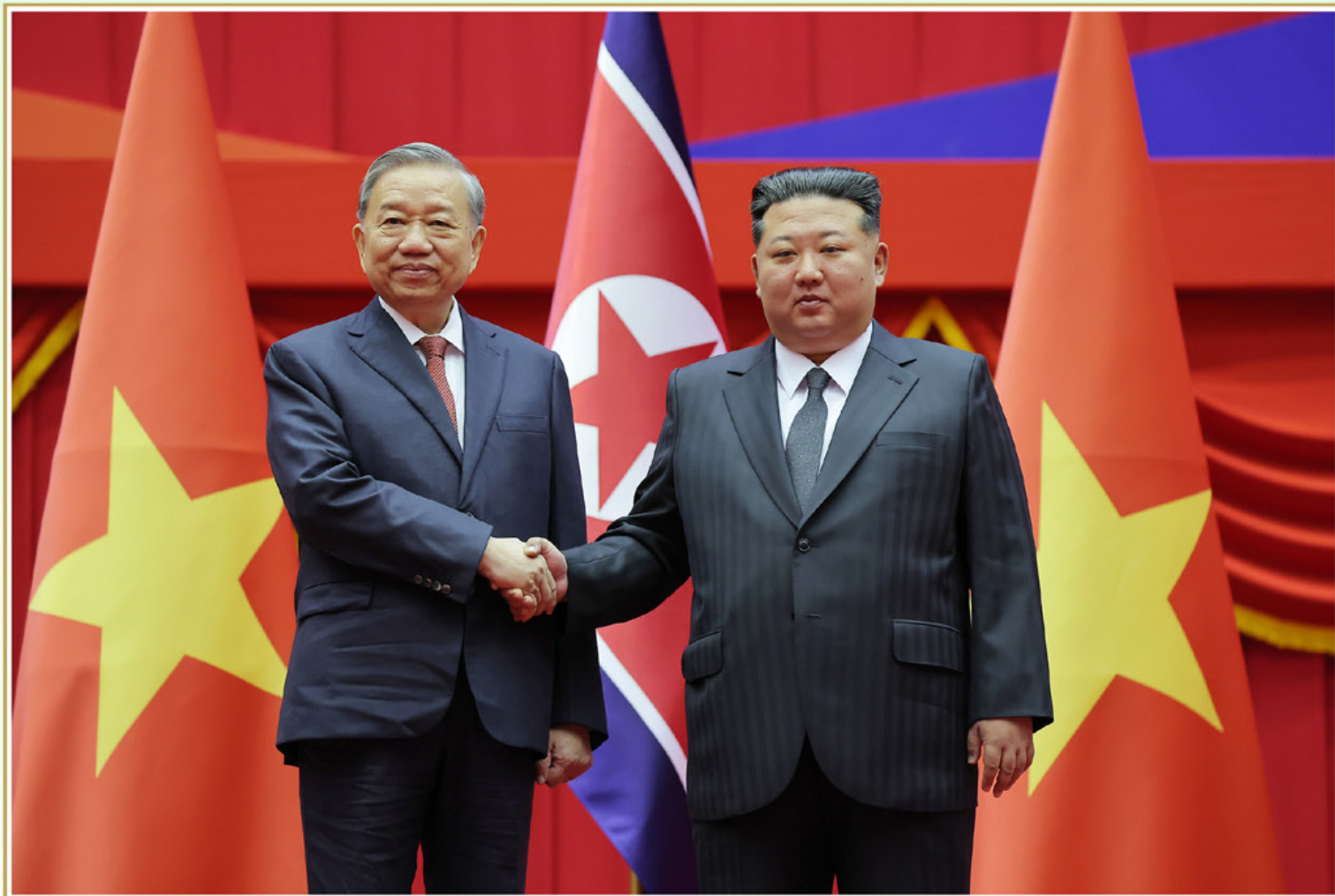
회담에서는 두 당, 두 나라에서의 당 및 국가건설정형과 경험이 통보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라오스인민 민주주의공화국사이의 호상협력을 강화해나가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저녁 통룬 씨쑤릿동지의 평양 방문을 환영하여 연회를 마련하시였다.

연회에서는 김정은동지와 통룬 씨쑤릿동지의 연설이 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통룬 씨쑤릿동지가 건강하여 당과 국가를 령도하기 위한 중차대한 활동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를 축원하시면서 뜨거운 작별인사를 나누시였다.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또 럽동지를 환영하는 의식 진행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여 조선로동당창건 80돐 경축 행사에 참가하는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또 럽동지를 환영하는 의식이 10월 9일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환영의식장에 나오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또 럽동지와 반갑게 상봉하시고 두 나라 국기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또 럽동지는 영접나온 우리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비서들인 레 밍 흥동지, 판 덩 짝동지, 웬 주이 응옥 동지, 도 반 찌엔동지와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리론리사회 위원장 겸 호志明국가 정치학원 원장인 웬 쉰언 탕동지, 월남사회주의공화국 국방상

관 반 장동지를 비롯한 월남측의 수행간부들을 만나시고 또 럽동지와 함께 사열대에 오르시였다.

월남사회주의공화국 국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는 속에 21발의 레포가 발사되였다.

김정은동지의 안내를 받으며 또 럽동지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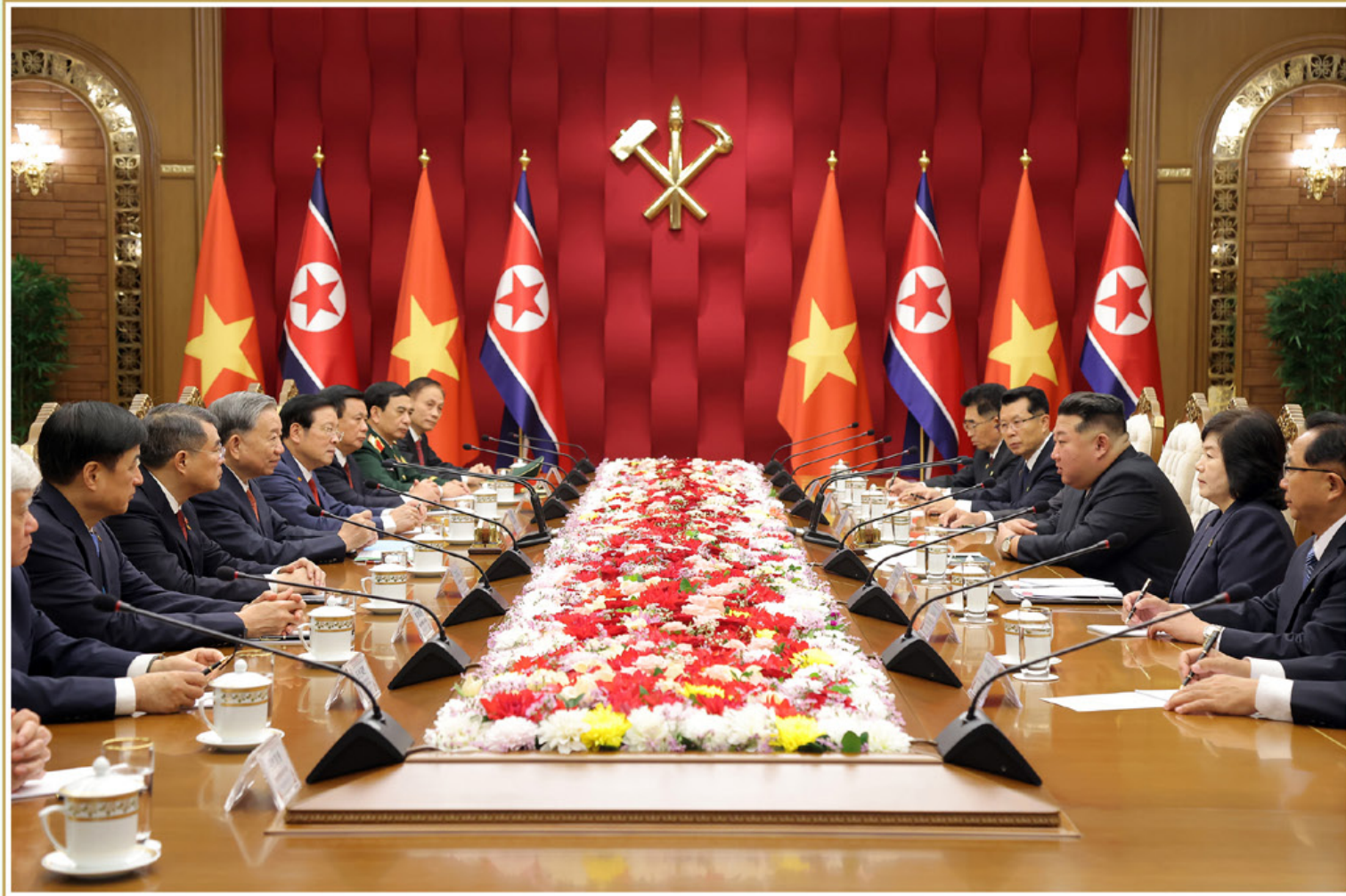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인민이 대경사를 맞이하는 뜻깊은 시기에 평양에서 또 럽동지를 만나게 된 기쁨을 피력하시였다.

또 럽동지는 **김정은**동지께서와 조선의 당과 인민이 뜨거운 동지적우애의 정을 안고 극진히 환대해 주는데 대하여 감사를 표시하였다.

또 럽동지는 두 나라 국기와 꽃다발들을 흔들며 열렬히 환영하는 군중에게 따듯이 답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또 럽동지와 회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0월 9일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또 럽동지와 회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월남당과 인민의 동지적우애의 정을 안고 평양을 방문한 또 럽동지를 열렬히 환영하시면서 이번 방문이 두 당과 두 나라 인민의 친선의 뉴대를 두터이 하고 우리 당창건 80돐을 더욱 뜻깊게 해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월남공산당의 령도밑에 월남정부와 인민이 부강하고 번영하는 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괄목할 성과들을 거두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 말씀하시였다.

또 럽동지는 조선인민이 김정은총비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자력갱생으로 국가의 전면적부흥을 위한 투쟁에서 경이적인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조선당과 정부, 인민과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새로운 높이에서 발전시켜나가는 월남당과 정부, 인민의 의지를 피력하였다.

두 당 총비서동지들께서는 회담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또 럽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연회를 마련하시였다.

연회에서는 김정은동지와 또 럽동지의 연설이 있었다.

연회는 시종 동지적이며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리강동지를 접견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0월 9일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인솔하고 우리 나라를 공식친선방문하고있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인 리강

동지를 접견하시고 친선적인 담화를 나누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리강총리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면서 습근평총서기동지가 고위급대표단과 함께 관록있는 예술단을 파견해줌으로써 우리 당창건 80돐을 더욱 뜻깊고 화기롭게 하여준데 대하여 충심으로 되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리강동지와 중국당 및 정부대표단의 이번 평양방문은 우리 당과 정부, 인민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각별한 우의의 정, 전통적인 조중친선협조관계를 중시하고 가일층 강화발전시켜나가는 중국당과 정부, 인민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말씀하시었다.

리강동지는 중조친선은 오늘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 동지들의 전략적인도밑에 관계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가고있다고 하면서 중조관계를 훌륭하게 수호하고 훌륭하게 공고히 하며 훌륭하게 발전시키는것은 중국당과 정부의 일관하고도 확고부동한 전략적방침이라고 말하였다.

담화에서는 두 당, 두 나라 공동의 귀중한 재부인 친선협조관계를 보다 폭넓고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호상고위급대왕과 전략적의사소통,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나가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논의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중친선협조관계를 시대적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드팀없는 립장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은 중국동지들과 함께 사회주의위업실현을 위한 공동의 투쟁속에서 조중관계의 보다 활력있는 발전을 추동해나갈것이라고 확인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중국인민이 습근평총서기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제14차 5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고 현대화된 사회주의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려정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고 말씀하시었다.

담화는 친선적이고 우애의 정이 차넘치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로씨야정당 《통일로씨야》 위원장 드미트리 메드베제브동지를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80돐에 즈음하여 전로씨야정당 《통일로씨야》 대표단을 인솔하고 우리 나라를 축하방문하고

있는 통일로씨야당 위원장 드미트리 메드베제브동지를 접견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드미트리 메드베제브동지를 따뜻이 맞이하시고 동지적이며 친선적인 담화를 나누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뜻깊은 계기에 로씨야의 벗들을 만난 자리를 빌어 가장 친근한 동지인 올라지미르 뿌진동지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메드베제브동지의 평양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면서 통일로씨야당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귀 당과 귀국민의 확고한 지지와 연대성의 표시이며 새로운 높이에 올라선 조로관계를 강력하고 전면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 동맹관계로 더욱 활력있게 확대발전시켜나가는데서 의의깊은 계기로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로 두 나라사이의 정치적협조를 강화하고 쌍무관계발전에 유리한 정치환경을 마련하는데서 집권당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두 나라의 국익수호와 인민의 복리를 위한 공동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두 당사이의 협력을 계속 강화하며 다방면적인 교류와 접촉을 더욱 긴밀히 해나가기 바란다고 말씀하시였다.

메드베제브동지는 조선인민의 력사에서 중요한 사변으로 되는 조선로동당 창건 80돐을 맞으며 평양을 방문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고 말하시였다.

그는 꾸르스크주해방작전에서 발취한 조선군인들의 용감성과 희생성은 두 나라를 이어주고있는 형제적뉴대의 공고성과 특수한 신뢰관계, 피로써 맺어진 동맹관계의 불패성을 립증해주었다고 하면서 두 당, 두 나라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갈것 이라고 하였다.

담화에서는 조선로동당과 통일로씨야당사이의 접촉과 협조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전망계획들이 토의되고 국제 및 지역정세를 비롯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들이 폭넓게 교환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존경하는 로씨야련방 대통령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뿌진동지와 통일로씨야당 지도부와 당원들, 형제적로씨야인민에게 보내는 따뜻한 인사를 전하시면서 국가의 주권과 안전리익, 령토완전을 수호하고 강력한 로씨야를 건설하기 위한 통일로씨야당 지도부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축원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메드베제브동지와 일행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창건 80돐 경축 로씨야예술인들의 공연 진행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신성하고 영광스러운 명절인 조선로동당 창건 80돐을 공동의 경사, 공동의 명절로 뜻깊게 기념하고있는 로씨야련방의 훌륭한 축원과 친선의 정을 안고 평양을 방문한 로씨야예술사절들의 경축공연이 10월 9일 오후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공연을 관람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 공연이 날로 깊어지는 조로관계의 친밀감과 형제적우의를 더욱 승화시키는데 특색있는 기여로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공연에는 로씨야의 인기가수들과 엠. 예. 빠뜨니쁘끼명칭



국립아카데미야민속합창단, 《포데스》알라 두호바발레극장, 로씨야련방무력 항공우주군협주단의 예술인들이 출연 하였다.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로씨야예술인들

에게 전달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무대에 오르시여 로씨야예술인들의 훌륭한 공연에 사의를 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창건 80돐 경축행사참가자들과 보장성원들을 축하격려하시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함께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0월 12일 우리 당의 만고불후의 혁명업적을 대서사시적 화폭으로 펼쳐보인 열병식과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군중시위 및 해불야회로 조선로동당 창건 80돐을 성대히 경축하는데 공헌한 행사참가자들과 보장성원들을 축하격려하시고 그들과 함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조선로동당 만세》를 관람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불같은 충성과 애국의 한마음으로 위대한 당 창건 80돐을 성대하게 경축한 전체 참가자들에게 뜨거운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연에 앞서 전체 경축행사참가자들과 보장성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사의를 표시하시였다.

《존경하는 평양시민 여러분!

기특한 우리 청소년학생동무들!

열정적인 우리 예술인들!

글쎄하고 영웅한 우리 열병부대 지휘관, 병사들!

동지들!

이번에 우리는 온 나라 인민들의 비상히 격양되고 분발된 열정속에서, 세계적인 관심과 주시속에서 우리 당 창건 여든돐을 성대하면서도 완벽하게 경축하였습니다.

당 창건 여든돐에 즈음한 국가적인 대정치문화축제들에 직접 참가하고 그 성과적보장에 관여한 여러분들이 정말로 수고가 많았고 당과 국가의 위상을 떨치는데서 중대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며칠동안 이어진 성대한 행사들을 치를 때마다 매 참가자들의 열정적인 모습에서 당과 국가를 위한 진정어린 마음들과 바쳐진 수고들을 직접 느낄수 있었습니다.

이번 우리의 명절은 정말로 황홀한 대정치문화축제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그리고 우리 무력의 열병시위, 평양시민들의 군중시위와 청년학생들의 해불야회가 경축행사의 기본절정이였습니다.

이번에 거행된 모든 행사들은 어느 행사라 할것없이 강한 조직성과 고도의 규률성은 물론 지난 시기보다 더 높은 예술적기량과 문화성이 요구되었습니다.

행사기간 불리한 날씨가 지속되었지만 그런 속에서도 모두가 너무도 완벽하게, 너무도 훌륭하게 자기 몫을 수행해주었습니다.

모든 행사들이 전체적인 면모에서뿐 아니라 매 세부에서도 우리 국가의 문명성과 강대성을 보여주는데 유감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모두의 하나같은 마음과 수고, 헌신에 의하여 우리의 명절은 빛나게





경축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 국가의 응력과 저력, 위력이 아쉬운 점 하나 없이 훌륭히 과시되었습니다.

가을비에 찬바람까지 싸늘한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이 매번 후끈 달아올랐던것은 여러분모두의 하나같은 국가에 대한 복무정신을 뜨겁게 마주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격정을 나눈 경축행사 전기간 너무도 고맙게 온몸으로, 마음으로 깊이 느꼈습니다.

이것은 한갓 수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 소중한 마음들에 진정으로 고마움을 표하고싶어서, 모두에게 이 마음을 꼭 전하고싶어서 오늘 행사참가자들이 다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라고 한것입니다.

나에게는 여러분들모두가 너무나도 고맙고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당창건 여든돛행사를 최상최대의 축제로 장식해준데 대하여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다시한번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들에 사랑과 정을 보냅니다.

동지들!

끝으로 사랑하는 조국에 대한 우리의 끝없는 애정과 무한한 존경을 만세합창으로 다같이 표하자는것을 제의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모두의 어머니조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전체 참가자들은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 당의 위대한 력사와 당의 위업의 정당성을 특색있는 정치행사로 온 세상에 떨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고도 그 모든 성과를 자기들에게 돌려주시며 열화의 정을 안겨주시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 최대의 경의를 삼가 드리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이 진행되었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열광의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축포의 화광이 10월의 밤하늘을 눈부시게 장식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10월의 대경사를 빛내인 모든 행사들이 우리의 절대적힘이고 불가항력인 일심단결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한데 대하여 거듭 값높은 평가를 주시면서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다시한번 뜨거운 격려의 인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80돐을 성대히 경축한 영광을 안으시고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80돐을 성대히 경축한 영광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삼가 드리기 위하여 10월 12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창건 80돐의 성대한 경축을 책임적으로 조직 지도하신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국가가 쟁취한 위대한 영광을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정중히 삼가 드리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우리 공화국이 지닌 높은 권위와 불패의 위력,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존함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과 국가의 영구존립과 승승발전의 만년초석을 다져주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업적은 사회주의조선의 줄기찬 강성과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이 새로운 상승단계에 올라서고 사회주의건설이 가속될수록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영원한 승리의 기치로 더욱 높이 추켜들것이며 그 길에서 한치의 변침도, 순간의 탈선도 없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위업에 언제나 충직하여 우리 국가의 부흥번영과 인민의 리상실현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헌신분투하실 엄숙한 의지를 피력하시였다.

조선로동당창건 80돐을 뜻깊게 경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 청소년학생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80돐에 즈음하여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간부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80돐을 온 나라가 인민의 대경사로 성대히 경축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으로 그리움의 대하가 굽이쳐흘렀다.

만수대언덕을 비롯하여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절세위인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찾은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과 청소년학생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당창건 80돐을 맞으며 우리 당의 위대한 창건사를 고이



조선로동당창건 80돐기념 중앙연구토론회 진행



중앙사진전람회 《조선로동당을 주체의 혁명적당, 진정한 인민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여》 진행



국가미술전람회 진행

간직하고있는 당창건사적관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았다.

조선로동당창건 80돐을 경축하여 국가미술전람회, 중앙 사진전람회, 우표전람회, 중앙산업미술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있었다.

각지에서 국기계양식이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창건 80돐경축 보고대회 및 보고회가 각 도, 시, 군들에서 진행되었다.

수도 평양을 비롯한 전국각지에서 10월명절을 경축하는 공연들이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창건 80돐을 맞으며 국립교예단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종합교예공연이 평양교예극장에서, 단막극 《내가 찾는 사람》 공연이 국립연극극장에서 진행되어 명절을 맞는 수도시민들에게 랑만과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평안남도, 강원도, 함경북도, 량강도, 개성시를 비롯한 각지에서 다채로운 공연무대들이 펼쳐져 10월명절을 맞이한

인민의 공지와 환희를 더해주었다.

수도와 각지의 봉사망들이 명절봉사로 흥성이었다.

이날 중앙동물원, 자연박물관, 룡라인민유원지를 비롯한 문화정서생활기지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근로자들과 학생소년들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나왔다.



국가도서전람회 진행



우표전람회 진행



경공업제품전시회 《경공업발전-2025》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로동당창건 80돐에 즈음하여 삼가 올리는 충성의 편지증정모임이 진행되었다.



수도의 거리들에 황홀한 불야경이 펼쳐져 10월명절의 밤을 환희롭게 장식하였다.

뜻깊은 10월명절을 성대히 경축하며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위대한 당을 따라 나아가는 앞길에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 억척의 신념을 간직하고 즐기찬 애국투쟁과 파감한 분투, 실속있는 성과로써 당 제9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맞이할 드높은 열의에 넘쳐있었다.



각지 농촌들에서 새집들이경사로 흥성이었다.



수도 평양을 비롯한 전국각지에서 10월명절을 경축하는 다채로운 공연들이 진행되었다.





평양국제빙상회거축전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80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한 중국예술인들의 경축공연이 진행되었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80돐 만세!





© 조선화보사 2025
 화보 《조선》은 인터넷 《조선의 출판물》
 홈페이지에 조선어, 중국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
 에스빠냐어로 게재됩니다.
 주소: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



7-25088039969